

인공지능이 만드는 놀라운 혁신, 쿠팡이니까 가능합니다

2019. 11. 5.



쿠팡 풀필먼트 물류센터 인공지능 접목

대형마트 100배의 셀렉션이 갖추어진 물류센터

연간 수억 개에 이르는 압도적인 주문 규모

이 모든 게 빈틈없이 익일, 새벽, 당일배 배송되는 속도

이 셀렉션과 규모와 속도 그대로 전국을 커버하는 서비스

쿠팡은 이 모든 놀라운 혁신을 가능하게 하면서도, 동시에 직원들이 효율적이고 즐겁게 일하길 바랐습니다.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최고의 속도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, 직원들을 계속해서 웃게 만들 수 있을까? 쿠팡은 고민했습니다. 이 모든 것의 해답은? 바로 이번 영상에 담겨있습니다.

쿠팡은 고객이 “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?”라고 묻게 될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. 이 말은 그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. 고객이 진심으로 이렇게 느끼게 하려면 기존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뤄져야 합니다. 마치 마법이라도 쓴 것처럼, 오늘 저녁에 주문한 상품이 다음날 눈뜨자마자 문 앞에 도착해 있고, 여러 사이즈 옷을 함께 주문해 입어보고 맞지 않는 사이즈를 문 앞에 내놓는 것만으로 반품이 끝나는 일상. 쿠팡이 만들어낸 마법 같은 경험입니다. 영국의 SF 작가 아서 클라크는 “충분히 발달한 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”고 말했다고 하죠. 이러한 마법과 같은 일상이 바로 쿠팡이 계속해서 기술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